

발행일 2020. 11. 15.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발행인 정재근
주 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선화동) Tel. 042-530-3500 Fax. 042-530-3528
제 작 ㈜봄인터랙티브미디어

대전여성가족원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도시경영실 책임연구위원 류유선

1. 연구 배경과 목적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를 기점으로 '성주류화'가 여성정책의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등장했다. 사회 전 영역에 젠더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가 정책분야에 확산되며, 일상생활의 성평등에 대한 여성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 일과 생활의 균형, 청년실업, 여성 빈곤, 여성에 대한 혐오와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디지털 성폭력의 증가는 '성평등'을 달성하지 않고서는 사회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이런 사회 변화 속에서, 1993년 문을 연 대전여성가족원이 성평등이라는 사회적·시대적 요구와 다양한 지역 여성이 요구하는 기능 및 역할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성주류화라는 글로벌패러다임과 한국사회의 새로운 화두로 등장한 성평등, 그리고 다양한 필요와 요구를 가진 대전 여성은 대전여성가족원이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장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2. 대전 여성의 현황과 아젠다

대전지역 여성 아젠다는 성평등, 안전, 청년여성으로 수렴된다. 현재 대전은 여성 관련 현안을 이슈화할 거점 플랫폼이 없다. 따라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 여성 관련 지식과 담론을 생산하기 어려운 구조로, 장기적으로는 청년여성의 지역 정착과 지역 선호 및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여성의 불안도 높다. 2018년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은 2016년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남성보다 여성이 인식하는 불안이 높게 나타나며, 그 원인은 범죄 발생률로 파악되고 있다. 대전 여성이 느끼는 불안감은 전국 성평등지수 상위권인 대전이 유독 안전분야에서 하위권을 차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20대 청년여성의 지역이탈도 계속되고 있다. 2009년 219,582명이었던 대전 20대 인구는 2018년 213,955명으로

5,627명 감소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남성이 258명 감소한 데 비해 여성은 5,359명 감소했다는 점이다.

[표1] 대전 여성 환경과 여건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교육열과 높은 학력 • 여성의 경제활동 욕구 및 사회적 참여의 증가 • 성주류화 추진 제도적 기반 구축 • 지역 성평등 수준 상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일자리 부족 • 여성에 대한 낮은 정책 관심 • 여성 거점 활동 기관 부재 • 안전분야 낮은 성평등지수 • 청년여성 지역 이탈
대전 여성 환경과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여성청년 네트워크 등장(보슈, 대학여성주의 동아리 등) •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 증가 • 일·생활 양립 문화 요구 확산 • 지역공동체 문화 확산 • 성평등에 대한 관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 갈등 심화 • 여성 빈곤 • 청년여성 실업 • 취업창업 환경 취약 • 디지털 성폭력 증대 • 세대간·계층간, 지역간, 사회적 갈등 심화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이런 현황을 토대로, 대전지역의 여성 아젠다를 분류하면 아래의 세 가지로 수렴된다.

[표2] 여성분야 아젠다

아젠다	내용
여성활동 거점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 연령, 계층, 직업, 학력 등 다양한 여성 활동 거점 플랫폼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제도 모니터링 활동 • 지역 여성 아카이브 사업 • 성평등 관련 교육
안전한 지역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 밀집 지역 및 대학가 주거지 안전 인프라 • 사이버 젠더 폭력 모니터링 및 관리 • 과학기술 활용한 지역 안전 환경 • 재난상황에도 일상이 유지되는 돌봄체계
청년여성이 정착하고 싶은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여성 거점활동 조직과 공간 • 일자리, 취미, 교육 등 정보 교류 플랫폼 • 공동체 발굴과 네트워크 지원 • 소모임 및 교육을 위한 자율적인 공유공간 • 유학생과의 교류 활성화 • 청년여성친화병원 • 청년 근로빈곤 지원 • 청년여성 역량강화 및 국내외 인적교류 통로 •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

3. 대전 여성가족원의 발전방안

대전여성가족원은 본원과 동부, 남부, 북부 총 4개 조직이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확대, 가족가치 확산과 가정친화 증진, 양성평등문화확산’의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 여성의 요구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대전여성가족원은 사이버여성가족원 개설, 다양한 수요층 발굴, 새로운 여성 중심의 기능을 발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사이버 여성가족원 개설 검토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지속가능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온라인 교육인프라 구축과 함께 상업적 콘텐츠와 경쟁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 개발과 확보가 관건이다. 따라서 사이버여성가족원 개설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과정, 파일럿 운영이 필요하다.

[표3] 사이버 여성가족원 추진과정

추진과정	내용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교육의 목적과 배경 지역 여성의 요구와 필요 필요성, 실현가능성, 공익성, 경제성 등 검토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 대상 조사 강사 대상 조사 필요 인프라 조사와 준비 온라인교육 가능 강좌 분류 및 검토
파일럿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별, 분야별 가능 강좌 시범운영 강사 모니터링 수강자 모니터링 시설 모니터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일럿 운영에 대한 평가 온라인교육 확대 가능성 평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별, 분야별 온라인 강좌 확대 인프라 구축 및 필요 인력 확충

2) 새로운 수강자 유입을 위한 교육 분야 개발

대전여성가족원의 프로그램은 타 기관과 중복되며, 수강자의 대부분이 5·60대 여성이다. 따라서 다양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구와 필요를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다양한 여성 수강자 발굴을 위해서는 새로운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대전 20·30대 여성들과 젠더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전여성가족원이 개발해야 할 프로그램은 경제, 성평등, 스포츠 분야 등으로 요약된다.

[표4] 새로운 프로그램 주제

분야	세부 프로그램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과 상속 각종 재테크(주식 및 투자 등) 경제 상식과 세계경제 정보 주택 청약 및 부동산 정보 세금 상식과 정보 디지털 경제(온라인 상거래, 창업 등)
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평등 강사 양성 성평등 교육 여성주의 영화, 독서 디지털 성폭력 모니터링

분야	세부 프로그램
스포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방어 훈련 주짓수, 합기도 등 팀 스포츠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테리어, 목공, DIY 자동차 관리 반려동물 디지털 이해 교육

3) 지역 내 ‘성평등’ 확산 기능 필요 : (가칭) 대전 성평등 플랫폼 조성

성주류화 제도 정착과 지역 성평등 확산이라는 목표 아래 지역의 성주류화 체계를 지원하는 한편, 성평등 확산에 필요한 성평등 교육과 지역 여성 네트워크 강화, 여성리더 발굴과 교육, 그리고 여성의 다양한 이슈를 담론화할 플랫폼에 대한 요구가 많다.

따라서 취·창업 교육, 가정친화, 문화·교양 등 유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대전여성가족원 가운데 하나를 지역 여성이 필요로 하는 조직과 공간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을 비롯하여 모든 교육 기관과 공공기관, 민간 기업의 성평등 교육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강사 양성 교육, 청소년(10대), 청년(20-30대), 신중년(40-50대), 후중년(60대 이후) 등 연령별 역량강화 교육, 세대 간·목적별 네트워크 및 공동체 형성지원 등 대전 성평등정책 강화, 대전 여성의 삶의 질과 지역 선호도 향상을 위해 대전 여성가족원의 기능전환을 고민할 시점이다.

4) 시민 ‘안전’ 관련 기능 필요 : (가칭) 여성안전 모니터링 센터

전국 성평등지수에서 대전이 취약한 분야는 ‘안전’이다.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와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격차’에서 지표별 1위 점수 차이가 각 20.3과 12.2로 크게 나타난다.

물리적 지역환경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 사업, 디지털 성폭력 및 젠더폭력에 대한 일상적 감시 및 추적을 위한 기술지원 등 지역 여성이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적 인프라 구축과 모니터링을 담당할 조직과 자원 지원이 긴급하다.

5) ‘청년여성’을 위한 조직과 공간 : (가칭) 청년여성 글로벌 컨택트 센터

청년여성의 지역이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0·30대 여성이 대전에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과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문화예술 인프라와 프로그램, 안전한 주거, 지역의 포용적 분위기, 좋은 일자리 등 청년여성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안이 정책화되는 실질적 통로가 시급하다. ‘졸업-취업-결혼’이라는 표준화된 삶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방식을 지향하는 청년여성들의 구체적 고민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모임과 네트워크, 역량강화를 위한 물질적 기반, 정서적 지원이 가능한 조직 및 공간 구성을 논의할 시점이다. 청년여성이 상상하는 일상이 대전에서 실현될 수 있는 비전을 지원하는 체계 즉, 청년여성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의견을 조율할 청년 포용적인 여성활동 거점 조직과 공간지원이 시급하다.

10월 대전 경제동향



종합평가

대전지역의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19년 4/4 분기 이후 2020년 1월까지 상승하였고, 2월 이후 5월까지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나, 2020년 6월 이후 상승함. 경기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20년 1월과 2월을 정점으로 3월 이후 7월까지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나 8월 들어 소폭 상승함

개별지표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다소 부진한 모습임. 전년동월대비, 수출이 개선되는 모습인 반면, 생산과 소비,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고용상황이 불안한 모습임. 전월대비로는 소비가 개선되었으나, 생산과 건설경기, 고용상황이 위축되고, 수출이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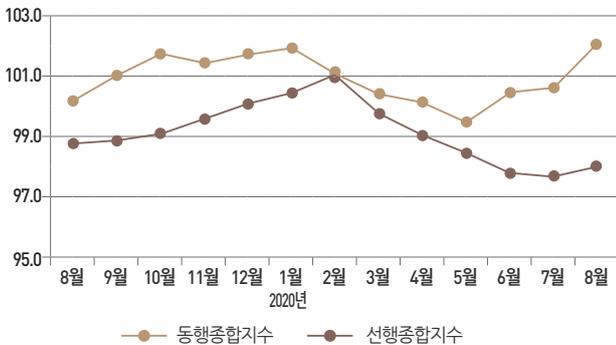
우리나라 경제는 완만한 수출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8월 중순 이후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내수·고용 지표의 회복세가 제약되는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됨

대외적으로는 주요국 실물지표 개선세가 둔화된 가운데 유럽·신흥국 등의 코로나19 확산세 등으로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우려가 지속됨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도 현재 생산, 건설, 고용 등의 실물경제지표가 주춤한 가운데,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됨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파악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경기보강 노력이 필요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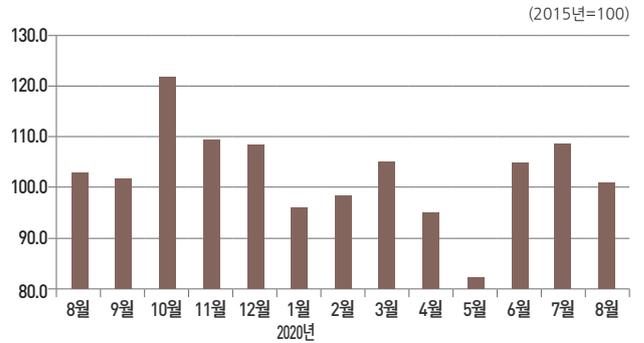
01

경기지수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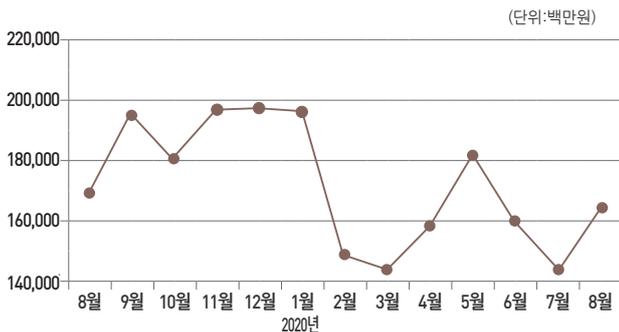
02

생산 제조업생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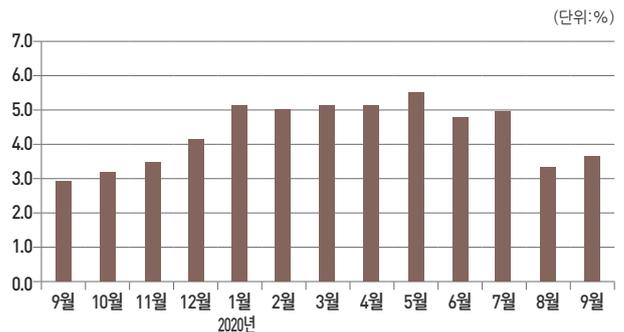
03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04

고용 실업률



10월 세종 경제동향



종합평가

2020년 9월 세종시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55.7로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감소함. 소상공인의 경기에 대한 전망지수는 100.0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변동없는 것으로 나타남

생산측면에서는 세종시 9월 광공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9.9% 증가, 전월대비 6.0% 증가함. 출하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0.6% 증가 하였으며, 전월대비 10.3% 증가함

9월 주택매매 거래량은 640건으로 전년 대비 82.9% 증가하였으며, 전월 대비 70.4% 감소함. 전월세 거래량은 1,588건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 전월 대비 4.5% 증가함

9월 경제활동 인구는 19만 천명으로 전년동월(17만 4천명) 대비 9.8% 증가, 전월(19만명) 대비 0.5% 증가함. 취업자는 18만 6천명으로 전년 동월(17만명) 대비 9.4%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0.5% 증가함

9월 전국의 실업률은 3.6%이며, 세종시 실업률은 2.5%로 전라남도(1.5%), 전라북도(2.0%), 제주도(2.4%)다음으로 낮게 나타남. 세종시 9월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 변동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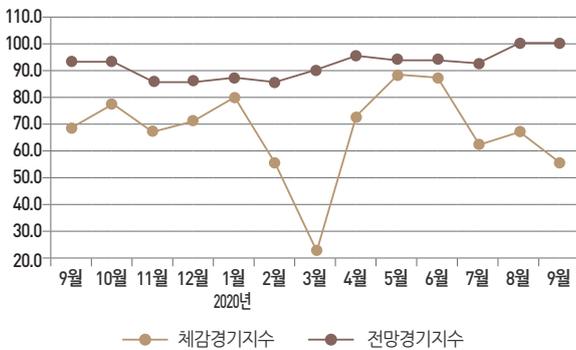
01

경기지수

소상공인 경기지수



(100=전월 대비 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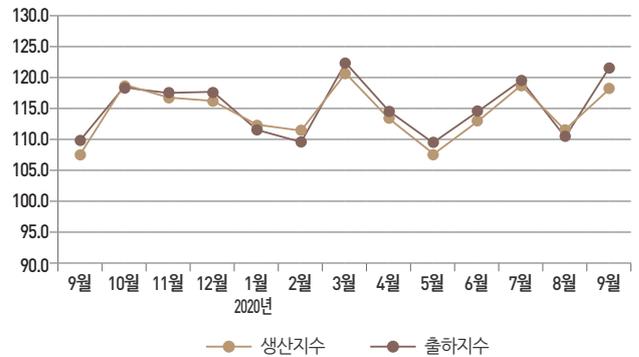
02

생산

광공업 생산지수 추이



(2015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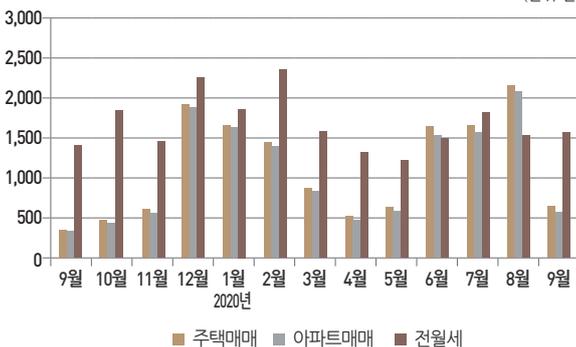
03

부동산

부동산 가격지수



(단위:건)



04

고용

실업률



(단위:%)

